

국내 러시아어권 교육 종사자의 자유 발화에 나타난 한국어 자음 오류*

Korean Consonant Error Patterns in the Spontaneous Speech of Russian-speaking Educators in Korea

김한나** · 김경열***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내 러시아어권 교육 종사자의 자유 발화 12,073어절을 분석하여 자음 오류와 화석화 양상을 검토하고 이들의 한국어 자음 산출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오류율이 낮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었으며, 특정 자음에서 오류 경향은 확인되었으나 모든 발화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화석화된 패턴은 아니었다. 오류는 /o/ > /b/ > /d/ > /l/ 순으로 관찰되었다. 비음의 경우 러시아어에 연구개 비음 [ŋ]이 독립 음소로 존재하지 않는 특징으로 인해 종성 /o/이 /l/로 대체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한국어에서는 어두에 위치한 무성 파열 평음과 격음이 기식성 정도의 차이로 변별되지만, 러시아어는 이를 음소 변별 자질로 사용하지 않아, 러시아어 화자가 이 대립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급 화자 중심의 소규모 자료라는 한계를 지니지만, 국내 교육기관에서 활동하는 러시아어권 이중언어 화자의 자유 발화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 언어의 자음 및 변이음 체계, 음소의 위치 및 인접 음운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음 경향을 기술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미를 지닌다.

핵심어 러시아어권 이중언어 교육 종사자, 한국어 자음 오류, 대조음운론, 변이음, 자유 발화

- 차례**
1. 서론
 2. 이론적 검토
 3. 연구 방법
 4. 오류 분석 결과
 5. 결론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러시아어권 교육 종사자의 자유 발화를 청취하여 의사소통을 저해할 만한 발화상의 문제가 존재하는지 화석화된 발음 오류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이들의 한국어 자음 발음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오류 양상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러시아어권 화자의 한국어 발화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고, 향후 관련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동포의 국내 유입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

* 이 논문은 한국러시아문학회 제96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박사과정(제1저자)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부교수(교신저자)

탄 등 이른바 러시아어권 국가 출신 동포들의 장기 체류와 정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¹ 한편, 러시아어권 이주민들은 대체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언어적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일자리·경제적 조건이 결합되어 언어 공동체 중심의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² 이러한 지역적·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산업단지 주변이나 특정 지역에는 이른바 ‘러시아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당 지역의 학교 및 교육 현장에서 러시아어권 구성원의 참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령기 러시아어권 학생(중도 입국·국내 출생 포함)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어권 출신의 원어민 보조교사, 이중언어 강사, 학습협력 강사³ 등을 적극적으로 채용·배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⁴

러시아어권 교육 종사자들은 대체로 한국어 능력이 높은 고급 화자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발화가 항상 원어민 수준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학생·학부모·교사 등 다양한 구성원과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언어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명확한 발화는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어권 교육 종사자의 자유 발화를 면밀히 분석하는 일은 이들의 한국어 발화가 의사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지, 화석화된 오류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모국어 영향이 어떻

게 반영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분석은 러시아어권 교육 종사자의 발화 특성을 이해할 뿐 아니라,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요소와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2. 이론적 검토

2.1.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자음 체계 대조

먼저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자음 체계를 살펴보자.

〈표 1〉 한국어의 자음 음소 체계⁵

		양순음	치경음 (치조음)	치경경구개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폐쇄음 (파열음)	평음	p(ㅍ)	t(ㄷ)		k(ㄱ)	
	경음	p*(ㅍ)	t*(ㄷ)		k*(ㄱ)	
	격음	ph(ㅍ)	th(ㄷ)		kh(ㄱ)	
파찰음	평음			tɕ(ㅈ)		
	경음			tɕ*(ㅈ)		
	격음			tɕh(ㅈ)		
마찰음	평음		s(ㅅ)			h(ㅎ)
	경음		s*(ㅅ)			
비음		m(ㅁ)	n(ㄴ)		ŋ(ㅇ)	
유음			l			

〈표 1〉과 〈표 2〉의 두 자음의 체계를 비교해 보면, 러시아어는 한국어보다 조음 위치가 더 다양하게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어 화자들은 한국어 자음을 산출할 때 조음 위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⁶

반면 조음 방법의 측면에서는 양 언어 간 차이가 뚜렷하여 학습자에게 일정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장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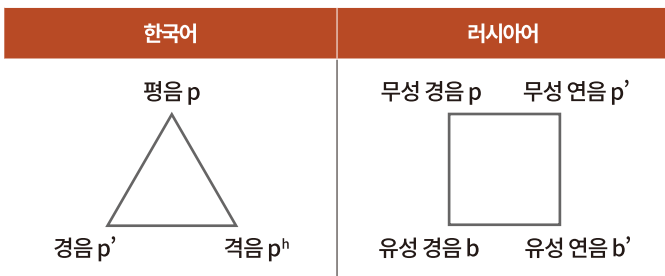
1 김병혁, 『이주 고려인의 서울 정착을 위한 대책』, 서울연구원, 2018, 11쪽; 김한나·정영주, 「재한 러시아어 화자의 한국어 어휘 차용 연구: 페이스북 커뮤니티 게시글을 바탕으로」, 『유럽사회문화』 31, 연세대 유럽사회문화연구소, 2023, 209~210쪽.
 2 선봉규, 「한국에서 외국인 집거지의 형성과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2(2), 한국동북아학회, 2017, 194~195쪽; 김태욱, 「청주시 거주 러시아어권 이주민 현황과 과제」, 『러시아학』 27, 충북대 러시아알타이지역연구소, 2023, 140쪽.
 3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인력을 지칭하는 명칭은 기관과 사업에 따라 상이하다. 현장에서는 주로 ‘이중언어 강사’로 불리지만, 공식 문서에서는 ‘다문화 언어강사’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비 영어권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력을 포괄하여 ‘교육 종사자’라고 통칭한다.
 4 「교육 고민 없이 인력 수급만...아이들에게 학교 수업은 ‘교문」, 『한겨레』, 2025.10.23.

5 신지영의 자음 체계를 따르되, 러시아어 자음 체계와의 비교를 위해 파찰음·마찰음의 배열을 조정함. 신지영, 『한국어의 말소리』, 박이정, 2012, 98쪽.
 6 허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 박이정, 2006, 60쪽.

〈표 2〉 러시아어의 자음 음소 체계⁷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순음		전설			중설	후설
	양순음	순치음	치음	치경음	치경구개	경구음	연구음
	경연	경연	경연	경연	경연	연	경연
폐쇄음	무유	p(n) p'(n')		t(τ) t'(τ')			
	무유	b(β) b'(β')		d(ɖ) d'(ɖ')			
파찰음	무유			c(ɟ)		ç(ç')	
마찰음	무유	f(φ) f'(φ')	s(c) s'(c')		ʃ(ʃ)		x(x)
		v(β) v'(β')	z(ʒ) z'(ʒ')		ʒ(ʒ)		
비음	유	m(M) m'(M')		n(H) n'(H')			
유음	설측	유		l(n) l'(n')			
	설전	유			r(p) r'(p')		
전이음	유					j	

체계에서 한국어는 평음·경음·격음의 삼상 대립을 보이는 반면, 러시아어는 유성·무성 대립과 경음·연음의 사상 대립을 갖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를 양순 폐쇄음을 기준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식 1〉 한국어와 러시아어 장애음의 대립 체계

도식에서 나타난 대립 체계의 차이 외에도, 두 언어의 비음 체계 역시 상이하다. 한국어에는 연구개 비음 [ŋ]이 독립 음소로 존재하나 러시아어에는 이에 대응하는 음소가 없다.

이와 같은 자음 체계상의 차이를 전제로, 다음 절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양상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다.

2.2 선행 연구 검토 및 문제 제기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음운 체계 차이에 주목한 초기 연구에서는, 한국어 평음의 유성 변이음은 러시아어 유성음과, 경음은 러시아어 무성음과 각각 대응되는 반면, 격음은 대응 음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차이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러시아어권 학습자가 격음 산출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측하였다. 또한 러시아어권 학습자가 무성음을 유성음으로 실현하거나, 탄설음 /

르/를 전동음으로 산출하거나, /o/ 실현에서 오류가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며 대조·분석적 예측을 기반으로 한 교수적 시사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⁸

실험 기반 연구에서는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러시아어 자음 대응 및 인지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어의 평음·경음·격음이 러시아어에서 1:1로 대응되지 않고 중복·혼합적으로 인식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⁹ 그러나 이 연구는 자음 음소를 조음 위치나 음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조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국어에서는 동일한 자음이 어두에서는 무성음으로, 어중에서는 유성음으로 실현되는 반면 러시아어에서는 유성·무성의 대립이 음소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언어의 자음을 비교할 때에는 조음 위치와 음운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러시아어 화자의 한국어 읽기 자료를 전사하여 실제 발화 기반의 음소 오류를 분석한 논의도 있다.¹⁰ 이 논의에서는 평음 /b, ɟ, ɟ, ʒ/는 유성음 환경에서는 오

8 이용권, 「러시아어 모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교육」, 『언어과학』 13(3), 한국언어과학회, 2006, 90~115쪽.
 9 김은석,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자음 발음에 관한 연구」, 숭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10 윤영혜, 「러시아어 화자들의 중간언어 음운 연구」, 『언어와 문화』 2(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6, 65~91쪽.

7 강덕수·이성민의 자음 체계에 각 음소에 대응하는 러시아어 자음자를 병기함. 강덕수·이성민, 『러시아어 발음과 구조』,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9, 135쪽.

류율이 낮으나 무성 환경에서는 오류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대조언어학적 예측이 실제 발화에서 항상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예측을 실제 자료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밖에도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¹¹가 있으나, 대부분 구조화된 읽기 자료를 기반으로 음소 단위의 오류를 제시하는 데 제한되어 있어, 실제 구어 발화에서 나타나는 변이적이고 역동적인 양상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국내 교육기관에서 활동하는 이중언어 강사(러시아어권 포함)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주로 역할, 정체성, 직무 경험, 교육적 지원 체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¹² 이중언어 강사 집단의 한국어 능력이나 언어적·음운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러시아어권 중도 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 발음 오류, 단모음·폐쇄음 산출 양상을 다룬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¹³ 이는 청소년 학습자 집단에 국한된 것으로 국내에서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성인 러시아어권 교육 종사자의 자유 발화를 분석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기존 연구는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나 언어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충분히 제공해 왔으며, 이중언어 강사에 관한 연구도 역할·정체성·직무 경험 등을 중심으로 폭넓게 축적되어 있다. 또한 학령기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이나 발화 특성을 다룬 연구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 학습자, 학령기 청소년, 혹은 직무 중심의 이중언어 강사 연구에 국한되어 있어, 국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러시아어권 교육자의 한국어 능력이나 발화 특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이들의 한국어 구어 발화에서 나타나는 음운적 실현 양상과 오류 유형, 그리고 그 배경에 놓인 두 언어의 자음 체계·음운 규칙·음운 환경과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러시아어권 교육자의 한국어 자유 발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실제 구어에서 나타나는 음운적 실현 양상과 오류가 어떠한 체계적·언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① 국내 교육 현장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어권 교육 종사자의 한국어 자유 발화에는 의사소통을 저해할 만한 발화상의 문제가 존재하는가?
- ② 이들의 한국어 자음 발화에서 나타나는 음운적 특징과 주요 오류 유형은 무엇인가?
- ③ 이러한 자음 발화 오류는 두 언어의 자음 체계, 음소의 위치, 변이음의 실현, 음운 규칙 적용 여부 등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때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11 김현숙, 「러시아어 화자의 한국어 발음 습득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백소영, 「러시아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어문연구』 59, 어문연구학회, 2009, 29~48쪽; 임 울리아,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최영미, 「러시아어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파찰음의 음향·음성학적 특징」, 『한말연구』 51, 한말연구학회, 2019, 215~252쪽; 박현정, 「러시아어권 중도입국 학생의 한국어 발음 오류 연구」, 진주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김유리,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12 강중훈·전주성, 「초등학교 이중언어강사의 다문화교육 경험 탐색 및 시사점」, 『교원교육』 30(3), 한국교원대 교육연구원, 2014, 1~19쪽; 먼리리·김정원, 「이중언어강사의 역할, 만족도 및 문제점에 대한 탐색: 서울다문화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8(3),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15, 36~59쪽; 원진숙·장은영,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의 정체성 연구」, 『한국초등교육』 28(2), 서울교육대 초등교육연구원, 2017, 185~210쪽.

13 김진실·김영주, 「한국 거주 학령기 고려인 아동의 한국어-러시아어 능력 비교 분석 연구」, 『이중언어학』 83, 이중언어학회, 2021, 1~38쪽; 정상우·이원선, 「고려인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한국어교육 개선 방안」,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6),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2, 121~148쪽; 손유진·장혜진, 「중도입국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어 발음 오류」, 『한국어학』 96, 한국어학회, 2022, 95~118쪽.

3. 연구 방법

3.1.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어권 교육 종사자 5인의 개별 인터뷰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두 A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이중언어 강사, 수업협력 강사, 한국어 강사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중·고급 수준의 한국어 사용자이다. 연령은 30~40대, 한국 체류 기간은 5~25년으로 다양하다. 인터뷰는 1인당 약 8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별 발화 분량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분석에 활용한 발화 자료의 양은 조정하였다. 질문은 이주배경과 정착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참여자는 주로 한국어로 응답하였다.

〈표 3〉면담자의 인구 통계와 한국 체류 이력

	모국어	국적	연령	성별	학력	토픽 등급	체류 기간
F1	러시아어	러시아	30대	여 ¹⁴	석사	4급	9년
F2	러시아어	러시아	40대	여	박사과정	4급	8년
F3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	30대	여	석사과정	5급	9년
F4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	30대	남	석사과정	5급	11년
F5	러시아어	한국 ¹⁵	50대	여	학사	6급	25년

녹음 자료는 네이버 자동 음성 인식 도구(ClovaNote)를 이용해 1차 전사한 뒤, 연구자가 전사본을 확인하며 필요한 구간만 반복 청취하여 실제 발음에 맞게 보완하였다. 전체 발화를 전사한 것이 아니라, 자동 전사 오류가 나타난 구간과 분석이 필요한 발화만 선별적으로 음성 전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전사 자료는 동료 연구자 2인의 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한국어와 러시아어 모두에서 사용되는 동일 어원의 외래어가 러시아식으로 실현된 사례는 모

국어 영향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이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ASR과 연구자 모두가 식별하기 어려운 소수의 구간 역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대담자를 제외한 참여자 5명의 발화는 총 12,073어절(33,792자)이었으며, 이 중 클로바노트의 오인식 어절은 912개(7.55%)였다. 채청취를 통해 선별한 결과, 분석 대상 음소는 353개, 이 중 자음 음소는 239개였다.

3.2. 오류 분류 기준

한국어 학습자의 자음 발음 오류는 음절 내 위치(초성, 중성, 종성)와 오류 양상(대치, 첨가, 누락)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¹⁶ 본 연구는 이러한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발음치 나눔터’의 분류 방식을 참고하여 변이음 실현이나 모국어 간섭 등 실제 발화에서 관찰되는 비표준적 조음 양상 또한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오류 양상, 오류 유형, 오류 음소의 단어 내 위치, 음소의 위치에 따른 변이음, 음운 규칙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세부 기준은 〈표 4〉와 같다.

〈표 4〉자음 오류 분석 기준 세부 항목

분류 항목	세부 내용
조음 방법	파열음(폐쇄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조음 위치	양순, 치조, 경구개, 연구개, 성문
오류 양상	대치, 첨가, 탈락
오류 유형	조음 방법 오류, 조음 위치 오류, 조음 방법·위치 복합 오류, 기타 오류(첨가), 기타 오류(탈락)
음소 위치	어두 초성, 어중 초성, 어중 종성, 어말 종성
음소의 변이음	결합 변이음, 임의 변이음
음운 규칙	동화(비음화, 유음화, 끝소리 규칙, 구개음화, 경음화) 축약(유기음화), 탈락(ㅎ 탈락), 첨가(ㄴ 첨가) 등

이때 음운 규칙은 별도의 분석 범주로 취급하지 않았다. 이는 클로바노트가 해당 발화를 정상적으로 전사한 경우, 해당 규칙이 지켜졌거나 의사소통을 저해하지 않는 것

14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여성 비율이 높다. 이는 실제 교육 현장의 성별 분포가 반영된 결과로 성별 구성을 균형있게 조정하지는 못하였다.

15 우즈베키스탄 출신 결혼 이민자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16 이정희,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박이정, 2003, 84쪽.

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음소의 차이가 명확하여 오류로 판단된 사례 중 음운 규칙의 관여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조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음운 규칙 오류의 빈도를 산출하는 것이 분석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4. 오류 분석 결과

분석 결과, 자음 오류는 총 239건으로 집계되었다. 오류의 층위는 음운 규칙, 음절, 음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음소 오류 221건, 음운 규칙 오류 18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절 층위 오류는 모음과 관련된 현상으로 본 연구의 자음 분석 범위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해당 자음 대치 오류 239건을 표준발음을 기준으로¹⁷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자음 체계에 따른 음소 및 음운 오류¹⁸

		양순음	치경음	치경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폐쇄음 (파열음)	평음	ㅂ, 19	ㄷ, 12		ㄱ, 12	
	경음	ㅃ, 1	ㄸ, 15(1)		ㄲ, 6(3)	
	격음	ㅍ, 5	ㅌ, 7		ㅋ, 2(1)	
파찰음	평음			ㅈ, 11		
	경음			ㅊ, 4(4)		
	격음			ㅊ, 12(1)		
마찰음	평음		ㅅ, 6			ㅎ, 13(2)
	경음		ㅆ, 2(1)			
비음		ㅁ, 6	ㄴ, 14		ㅇ, 84(3)	
유음			ㄹ, 8(2)			

각 항목에는 해당 음소와 관련된 오류의 전체 빈도를

제시하였으며, 괄호 안의 숫자는 음운 규칙에 해당하는 오류의 빈도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 빈도수에서 괄호 안의 음운 규칙 오류를 제외하면 해당 음소 오류의 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다.

표에 제시된 빈도수를 살펴보면,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음소로는 연구개 비음 /ㅇ/, 양순 파열 평음 /ㅂ/, 치조 파열 경음 /ㄸ/, 치조 비음 /ㄴ/, 치조 파열 평음 /ㄷ/, 연구개 파찰 격음 /ㅋ/로 나타났다.¹⁹

4.1. 비음 /ㅇ/, /ㄴ/, /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개 비음 /ㅇ/은 러시아어에 존재하지 않는 음소이므로 발음 오류가 예상되었고, 실제로도 연구개 비음 음소 오류가 84건, 음운 오류가 3건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특히 음소 오류의 대부분은 /ㅇ/으로 실현되어야 할 위치에서 동일한 조음 방법을 유지하면서 조음 위치가 가장 가까운 치조 비음 /ㄴ/으로 대치되는 사례(66건)로, 이는 러시아어에 연구개 비음 [ŋ]이 부재함에 따라 학습자가 유사한 음향·조음적 특성을 지닌 [n]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비음 오류 양상

오류 발음 표준발음	대치음소					소계
	ㄴ	ㅇ	ㅁ	탈락	기타	
ㅇ	66		6	7	5	84
ㄴ		9	3	1	1	14
ㅁ	1	3		1	1	6

연구개 비음 오류는 F1을 제외한 모든 화자에게서 관찰되었으나, 전체 오류 비율이 낮아 종성 /ㅇ/의 산출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오류가 특정 음운 환경과 관련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종성 /

17 여기서 '표준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표준적으로 /ㅂ/로 실현되어야 하는 위치에서 이를 /ㅃ/, /ㅍ/, /ㅁ/ 등 다른 음소로 발음한 모든 사례를 하나로 묶어 산출한 것을 의미한다.

18 이는 대치오류를 보여주며, 자음 음소를 첨가한 경우는 이 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자음 첨가 사례는 총 6건이다.

19 본 자료에서 /ㅎ/ 오류가 /ㅌ/보다 1건 더 많았으나, /ㅎ/ 탈락은 한국어 원어민의 구어에서도 빈번히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본 연구의 오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o/ 뒤에 오는 음소를 기준으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o/이 /ㄴ/로 대체된 오류의 후행 음소를 분석한 결과, 후행 자음이 /스/인 경우가 18건(38.3%), /ㅌ/인 경우가 12건(25.5%)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러한 분포는 연구개 비음 /o/이 후행 자음의 조음 위치에 영향을 받아 /ㄴ/로 실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스/와 /ㄴ/는 모두 치조음으로, 후행 /스/에 의해 조음 위치 동화가 일어나면서 /o/이 치조 비음 [n]으로 대체되기 쉬운 환경을 형성한다. 한편 /ㄴ/은 기본적으로 치조 비음이지만, /i/나 /j/와 같이 전설 고모음 또는 전설 접근음 앞에서는 경구개 비음 [ɲ]으로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스/는 /ㄴ/의 경구개 변이음 [ɲ]으로 대체되기가 쉬운 조건을 제공하며, 이는 중성 /o/의 대체 오류가 특정 음운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시 1] /o/ → /ㄴ/

- 그냥 출생*증명서 어머니미 러시아인 아버지미...(F3, 출생증명서)²⁰
- 우리 돈*잔*처럼 바로 여기 러시아 모스크*아*에 살던 사람 드리...(F5, 동생처럼, 모스크바에)

/o/의 음운규칙 오류는 소수의 비음화 미적용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비음화 규칙의 적용에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예시 2] 비음화 오류

- 국내: 군*내 (F3, 궁내), 꺾*니하고 (F5, 경니하고)

치조 비음 /ㄴ/의 오류는 총 14건으로 관찰되었으며, 2건을 제외한 대부분이 동일한 비음 계열로 대체되었다. 특히 /ㄴ/가 /o/으로 대체된 9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가운데 6건에서 후행 자음이 연구개음(/ㄱ/5건, /ㄷ/1건)으로

나타나, /o/과 같은 계열인 연구개 자음이 후행하는 환경에서 오류가 집중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시 3] /ㄴ/ → /o/

- 그때무네 다소*치* 다소*치* 방*까지... (F1, 다섯째 반까지)
- 이제 진청*가튼 동네에서 좀 만나세요. (F2, 진천가튼)

이러한 양상은 러시아어 화자들이 /ㄴ/를 기본적으로 치경음으로 인지하면서도 특정 음운 환경에서는 조음 위치가 후방으로 이동하는 변이를 자연스럽게 허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어의 банк(은행)가 실제 발화에서 [banjk]으로 실현되는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러시아어 화자는 [ɲ]을 독립된 음소로 인지하지 않지만, /ɲ/(n)의 변이음으로 [ɲ]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별개의 소리로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인지 구조로 인해 한국어에서도 /ㄴ/가 연구개 자음 앞에서 /o/(n)과 유사하게 실현되더라도 이를 /ㄴ/의 자연스러운 변이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ㄴ/와 /o/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두 음소가 혼동되는 기반이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순 비음 /ㅁ/는 오류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찾을 만한 사례(6건)가 드물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4.2. 양순 파열음 /ㅂ/, /ㅃ/, /ㅍ/

〈표 7〉 양순 파열음 오류 양상

오류발음	대치음소				위치		소계
	ㅂ	ㅃ	ㅍ	ㅁ	어두초성	어중초성	
ㅂ		2	11	5	13	3	19 ²¹
ㅃ	1				1		1
ㅍ	4	1			4	1	5

양순 파열 평음 /ㅂ/의 대체 오류는 총 18건으로 확인

20 소리 나는 대로 간략 음성 전사를 한 것임.

21 대체 음소는 18건이며, 소계 19건 중 1건은 탈락에 해당한다.

되었다. 먼저 오류가 나타난 위치를 살펴보면 어두 초성이 1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어중 초성이 3건, 어중 종성이 2건으로 나타났다. 대치 양상을 분석한 결과, /ㅍ/로의 대치가 11건, /ㅃ/로의 대치가 2건으로 총 13건이 같은 양순 파열음 내부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양상은 러시아어의 장애음 체계가 유성·무성 대립과 연음·경음의 사상 대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한국어의 장애음이 평음·경음·격음이라는 삼상 대립을 보인다는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동일한 조음 위치에 속하는 양순 비음 /ㅁ/로의 대치도 5건 관찰되었으나, 이는 한 명의 피실험자에게만 국한되었으므로 상술하지 않는다.

사례 수가 적어 경향성을 논의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나, /ㅂ/의 오류는 주로 어두 초성에서 관찰되었으며, 평음을 격음으로 대치하는 사례가 비교적 많았다. 반면 경음 /ㅃ/으로의 대치는 소수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언어의 최적성 이론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동일한 조음 위치 또는 동일한 조음 방식을 유지한 채 음소를 대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시 4] /ㅂ/ → /ㅍ/ 대치

- 고려인이라서 꺾*자를 만들 수* 이썬요. (F2, 비자를)

[예시 5] /ㅂ/ → /ㅃ/ 대치

- 항구거를 배우는 러시아 사람들의 뽕*이에요. 뽕* (F1, 병이에요 병)
- 그때는 아니어썬. 그때는 계속 할머니 지배 살아쓰니까 뽕*도 따로 이썬썬 (F4, 방도)

양순 파열 경음 /ㅃ/의 오류는 1건에 불과하여 별도의 분석을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경음 오류가 극히 적다는 것은 두 언어의 음소 체계를 대조한 결과, 러시아어 화자에게 한국어의 경음 발화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이

라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²² 이러한 경향이 다른 장애음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이후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양순 파열 격음 /ㅍ/의 오류는 5건으로 대부분 /ㅂ/로 대치된 사례였다. 러시아어 자음 체계를 고려하면 이러한 양상은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한국어에서 어두 초성의 장애음은 모두 무성음으로 실현되며, 유성음은 모음 사이와 같은 유성 환경에서만 나타난다. 반면 러시아어는 어두 초성에서도 유성 장애음이 올 수 있으며, 예컨대 *Вода* [vɐda]와 같은 단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음 체계의 차이는 /ㅍ/가 /ㅂ/로 대치된 소수의 사례를 이해하는 데 일정 부분 참고가 될 수 있다.

[예시 6] /ㅍ/ → /ㅂ/ 대치

- 이제 벼*니레 몬 만나고 (F2, 평일에)
- 거기에서 비*료이쓰면 비*린토기도 (F3, 필요있으며, 프린터기도)

4.3. 치조 파열음 /ㄷ/, /ㄸ/, /ㅌ/

치조 파열음에서 나타난 오류 사례는 총 34건이었다. 평음 /ㄷ/에서 12건, 경음 /ㄸ/에서 15건, 격음 /ㅌ/에서 7건이 관찰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치조파열음 대치 오류 양상

오류 발음 / 표준 발음	대치 음소				위치		소계
	ㄷ	ㄸ	ㅌ	ㄴ	어두초성	어중초성	
ㄷ		2	4	6	10	2	12
ㄸ	12		3		11	4	15
ㅌ	3	4			0	7	7

분석 결과, 경음 /ㄸ/의 대치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ㄷ/로의 대치가 12건, /ㅌ/로의 대치가 3건이었다.

²² 이용권, 「러시아어 모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교육」, 『언어과학』 13(3), 한국언어과학회, 2006, 107쪽.

위치별로 보면 어두 초성에서 11건, 어중 초성에서 4건이 관찰되었다.

전체 치조 파열음 오류 34건 가운데, /ㄷ/가 /ㄴ/로 대치된 6건을 제외한 28건은 모두 치조 파열음 내부에서 발생한 대치 오류였다. 이는 러시아어 화자가 한국어의 평음·경음·격음 대립을 변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다시 한번 시사한다.

특히 경음 /ㄸ/에서 오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은, 한국어의 경음이 러시아어의 무성 장애음과 음향적으로 유사하여 학습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예측과 상반한 결과이다.²³ 다만 이러한 경향은 치조 파열음에서만 두드러지며, 양순·치경구개·연구개 파열음에서는 평음의 오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4.4. 치경구개 파찰음 /ㅈ/, /ㅉ/, /ㅊ/

〈표 9〉 치경구개 파찰음 대치 오류 양상

오류 발음 표준 발음	대치 음소			위치		소계
	ㅈ	ㅉ	ㅊ	어두초성	어중초성	
ㅈ			11	11		11
ㅉ	3		1		4	4
ㅊ	11	1		10	2	12

치경구개 파찰음에서는 특히 평음 /ㅈ/와 격음 /ㅊ/의 변별에서 두드러진 오류 양상이 관찰되었다. /ㅈ/를 /ㅊ/로 대치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어두 초성에서 나타났다. 이는 러시아어 화자가 어중 초성 위치에서의 유성 실현을 /ㅈ/의 기저음으로 받아들이는 반면,²⁴ 어두 초성의 무성 환경에서는 /ㅊ/과 유사한 음성으로 인식하여 보다 강한 유기성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조음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러시아어 화자는 유·무성성을 한국어 파찰음 변별의 주요 자질로 대응시키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 체계에서는 초성의 무성 파찰음 /ㅈ/와 /ㅊ/의 차이를 충분히 변별하기가 어렵다(유기성의 정도는 경음 < 평음 < 격음의 순서로 증가한다). 이 같은 인식의 혼란은 /ㅊ/를 /ㅈ/로 대치한 11건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즉, 러시아어 화자는 평음과 격음 간의 유기성 차이를 일관되게 변별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예시 7] /ㅈ/ → /ㅊ/ 대치

- 총*이 있어요. 네 (F1, 정인)
- 항구게서 치*인 소개로 만나쎄요 (F5, 지인)

[예시 8] /ㅊ/ → /ㅈ/ 대치

- 저는 전*주로 이사하면 남편 기숙사나 (F3, 청주로)
- 여기 진*조*기 과네워네 이쎄는데 (F2, 친척기)

이에 비해 /ㅉ/는 유기성이 가장 약한 음이므로, 적어도 경구개 파찰음범주 내에서는 다른 음소와 혼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어 장애음의 다른 파열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음 위치에서 유·무성성과 격음, 연음 대립이 변별 자질이 되어 한국어의 삼지적 상관속과 일대일 대응이 어렵다. 그러나 경구개에서 다른 무성음은 같은 소리의 유·무성성에만 변별이 되어 삼지적 상관속에 대한 일대일 대응이 어려운 반면, 치경구개 파찰음의 경우는 예외적이다. 러시아어에서 치경구개 파찰음에는 유성음이 예외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무성음만이 존재하는데, 이 중 치경 파찰음 /tʃ/([t͡ɕ])는 경음 /ㅉ/와, 경구개음 파찰음 /t͡ɕ/([t͡ɕ])는 /ㅊ/와 각각 대응될 수 있다. 이때 /ㅈ/가 경구개 파찰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ㅊ/와의 대응은 자연스럽지만, /ㅉ/와의 대응에는 다소 논리적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음소 체계에서 더 나아가 음성 실현, 즉 변이음

23 이용권, 「러시아어 모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교육」, 『언어과학』 13(3), 한국언어과학회, 2006, 108쪽.

24 이는 우리가 한국어 장애음의 기저음을 무성음으로 보는 인식과 대비된다.

까지 살펴보면 이러한 대응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어의 경구개 파찰음은 화자에 따라 뜻의 분화를 일으키지 않고, 치조 파찰음으로의 임의 변이를 허용하는데, /스/는 [tʃ]뿐 아니라, 치조 파찰음 [ts]로도 실현될 수 있으며, 대응되는 유성 파찰음에서도 [dʒ] → [dz]와 같은 변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스/는 치조 파찰음의 변이음 [ts]를 가질 수 있고, 이는 /ㅍ/에서 [tsʰ]로 실현된다. 즉 러시아어의 치경 파찰음 /tʃ/([c, ts])와 한국어의 /ㅍ/는 조음 위치와 방법 측면에서 매우 유사해지며, 이러한 음성적 근접성이 두 음의 대응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표 8>에서 나타난 /ㅍ/ → /스/ 대치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들 사례는 음소 변별의 혼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경음화 적용 오류, 즉 음운 규칙의 오용 또는 미적용에 의해 발생한 현상이다.

[예시 9] /ㅍ/ → /스/, /ㅍ/ 대치

- 십년 아네 너는 결전*해야돼요 (F3, 결정해야)
- 네 국초*글 받고 누군가 마*스카* 쪼게서 (F2, 국짜글, 모스크바)

정리하면, 치경구개 파찰음에서는 무성음 /스/와 /ㅍ/간의 혼동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고, 특히 어두 초성의 무성 /스/을 /ㅍ/으로 대치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ㅍ/는 다른 장애음과 달리 음소 인식 측면에서 큰 혼동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러시아어 자음 체계에서 /ㅍ/와 /ㅍ/에 각각 대응되는 음소가 존재하여 음소 대응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ㅍ/과 관련된 오류는 경음화 규칙을 적용하지 못한 사례가 드물게 관찰된 정도였다.

4.5. 치경 마찰음 /스/, /ㅍ/

치경 마찰음의 오류는 총 6건으로 전반적으로 매우 드

물게 관찰되었다. 이 가운데 /스/ → /ㅍ/로 대치된 오류가 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대치 오류는 주로 어두 초성에서 나타났다. 실제 예로는 ‘사는’이 ‘싸는’으로 실현된 경우, ‘모아서’가 ‘모아쑈’로 발화된 경우 등이 있다.

4.6. 성문음 /ㅎ/

성문음 /ㅎ/에서의 오류는 대부분 어중 초성에서의 탈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ㅎ/ 탈락은 모국어 화자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변별적 오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다. 다만 드물게 /ㅎ/이 연구개 파열음 /ㄱ/으로 실현된 사례가 2건 관찰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고급 수준의 러시아어권 교육 종사자 5명의 자유 발화 자료 총 12,073어절을 분석하여, 한국어 자음 산출에서 나타나는 음소 및 일부 음운 규칙 관련 오류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체 발화의 오류율은 7% 미만으로 매우 낮아 의사소통을 저해하거나 모든 발화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화석화된 오류는 관찰되지 않았다.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음 음소 오류는 239건이었으며, 이들의 오류 빈도는 /ㅇ/ > /ㅂ/ > /ㄷ/ > /ㄴ/ 순으로 나타났다.

비음 중에서는 러시아어에 연구개 비음 [ŋ]이 존재하지 않는 음운 체계적 특성 때문에 종성 /ㅇ/가 /ㄴ/로 대치되는 오류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류는 후행 /스/, /ㅍ/와 같은 전설 자음의 영향으로 조음점이 전방으로 이동하는 음운 환경과 결합하여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ㄴ/가 연구개 자음 앞에서 /ㅇ/처럼 실현되는 사례는 러시아어 화자가 /ㄴ/와 /ㅇ/의 변이 폭을 넓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순 및 치조 파열음에서는 각각 /ㄷ/와 /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오류 빈도가 나타났으며, 특히 치조 파열음의 경우 경음 /ㄸ/가 평음·격음과 혼동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러시아어 화자가 한국어의 평음·경음·격음이 라는 삼지적 상관속을 분명하게 변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치경구개 파찰음에서도 평음 /ㅈ/와 격음 /ㅉ/ 간 혼동이 자주 관찰되었으며, 특히 어두 초성에서 /ㅈ/가 /ㅉ/로 실현되는 대치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음 /ㅊ/는 러시아어의 치경 파찰음 /tʃ/와 대응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실현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밖의 자음 범주인 양순 비음 /ㅁ/, 성문음 /ㅎ/, 치경 마찰음 /ㅅ/·/ㅆ/에서는 오류가 드물어 뚜렷한 경향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참여자 수가 5명에 불과하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시된 논의는 확정적 결론이라기보다 탐색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지면의 제약으로 모음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모음 발화에서 관찰된 오류 경향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아울러 외국인 화자의 발음 오류는 모국어와 목표어 차이뿐 아니라 목표어 내부 요인과 개인적 변수를 포함한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모국어와 목표어 간의 대비만을 제한적으로 검토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러시아어권 이중언어 교육 종사자의 실제 자유 발화를 분석하여 이들의 한국어 자음 산출 양상을 자연 발화를 기반으로 세밀하게 기술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분석이 단순한 음소 수준을 넘어 음소 위치에 따른 변이음, 선행·후행 음소 환경의 영향, 그리고 대응 음소가 부재한 경우 변이음 차원의 대응 가능성까지 포괄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음성·음운적 층위에서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참여자와 다양한 숙련도(특히 중급 화자)를 포함한 확장된 자료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설명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가 축적된다면 러시아어권 화자의 한국어 발음 특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발음 지도와 교육 자료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강덕수·이성민, 『러시아어 발음과 구조』, 한국외국어대 출판부, 2009.
- 강중훈·전주성, 『초등학교 이중언어강사의 다문화교육 경험 탐색 및 시사점』, 『교원교육』 30(3), 한국교원대학교육연구원, 2014.
- 김병혁, 『이주 고려인의 서울 정착을 위한 대책』, 서울연구원, 2018.
- 김유리,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 김은석,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자음 발음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김진실·김영주, 『한국 거주 학령기 고려인 아동의 한국어-러시아어 능력 비교 분석 연구』, 『이중언어학』 83, 이중언어학회, 2021.
- 김태욱, 『청주시 거주 러시아어권 이주민 현황과 과제』, 『러시아학』 27, 충북대 러시아알타이지역연구소, 2023.
- 김하나·정영주, 『재한 러시아어 화자의 한국어 어휘 차용 연구: 페이스북 커뮤니티 게시글을 바탕으로』, 『유럽사회문화』 31, 연세대 유럽사회문화연구소, 2023.
- 김현숙, 『러시아어 화자의 한국어 발음 습득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먼리리·김정원, 『이중언어강사의 역할, 만족도 및 문제점에 대한 탐색: 서울다문화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8(3),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15.
- 박현정, 『러시아어권 중도입국 학생의 한국어 발음 오류 연구』, 진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 백소영, 『러시아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어문연구』 59, 어문연구학회, 2009.
- 선봉규, 『한국에서 외국인 집거지의 형성과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2(2), 한국동북아학회, 2017.
- 손유진·장혜진, 『중도입국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어 발음 오류』, 『한국어학』 96, 한국어학회, 2022.
- 신지영, 『한국어의 말소리』, 박이정, 2012.
- 원진숙·장은영, 『다문화 이중언어강사의 정체성 연구』, 한국초등교육, 28(2), 서울교육대학교초등교육연구원, 2017.
- 윤영해, 『러시아어 화자들의 중간언어 음운 연구』, 『언어와 문화』 2(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6.
- 이용권, 『러시아어 모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교육』, 『언어과학』 13(3), 한국언어과학회, 2006.
- 이정희,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박이정, 2003.
- 임울리아,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정상우·이원선, 『고려인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한국어교육 개선 방안』,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6),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2.
- 최영미, 『러시아어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파찰음의 음향·음성학적 특징』, 『한말연구』 51, 한말연구학회, 2019.
- 허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 박이정, 2006.

2. 기타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 발음법

https://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097&mn_id=95

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 규범: 표준어 규정 [시행 2017.3.28.]

https://www.korean.go.kr/kornorms/regltn/regltnView.do?regltn_code=0002®ltn_no=395#a395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맞춤치 나눔터: 오류 주석 맞춤치

<https://kcorpus.korean.go.kr/service/goErrorAnnotationSearch.do>

네이버. 클로바노트 <https://clovanote.naver.com/>

부산대학교 표준발음 변환기 <https://pronunciation.cs.pusan.ac.kr/>

이준희·이승욱, 『교육 고민 없이 인력 수급만... 아이들에게 학교 수업은 '고문'』, 『한겨레』, 2025.10.23.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224464.html

Abstract**Korean Consonant Error Patterns in the Spontaneous Speech of Russian-speaking Educators in Korea**

Kim, Han-Na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im, Gyeong-Yeol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12,073 word units from the spontaneous speech of Russian-speaking educators in Korea to examine consonantal errors and fossilized patterns, and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their Korean consonant produc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overall error rate was low and did not hinder communication, and although certain consonants exhibited recurring error tendencies, these did not form consistent fossilized patterns across all utterances. The errors were observed in the order of /ŋ/ > /p/ > /t̚/ > /n/. In the nasal category, the frequent substitution of syllable-final /ŋ/ with /n/ appears to stem from the absence of a velar nasal phoneme in Russian. In Korean, lenis and aspirated voiceless stops in word-initial position are distinguished by the degree of aspiration, whereas Russian does not employ aspiration as a phonemic cue. As a result, Russian speakers showed difficulty differentiating this contrast. Although this study is limited by its small number of highly proficient participants, it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s the spontaneous speech of Russian-speaking bilingual educators working in Korea. Furthermore, the study holds methodological significance in that it examines pronunciation tendencies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consonantal and allophonic systems of both languages, as well as phoneme position and adjacent phonological environments.

Keywords Russian-speaking bilingual educators in Korea, Korean consonant errors, contrastive phonology, phonological variation, spontaneous speech
